

ICT산업 2020년 4분기 동향

- I. 반도체
- II. 디스플레이
- III. 휴대폰

작성

선임연구원 이미혜 (3779-6656)





< 요약 >

(반도체) 2020년 4분기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스마트폰 수요 회복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3% 성장

- (세계시장) 4분기 세계 D램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13.2% 증가한 176억 달러, 낸드플래시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12.9% 증가한 142억 달러를 기록
- (가격) 메모리반도체 가격은 서버 수요둔화 등으로 3분기부터 하락세로 전환, D램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1.4%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낸드플래시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3% 하락
- (수출) 4분기 반도체 수출은 모바일용 반도체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8.3% 증가한 270억 달러 기록

(디스플레이) 4분기 세계 디스플레이산업은 양호한 IT·TV 패널 수요, 스마트폰 수요 회복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7% 성장

- (세계시장) LCD 시장은 노트북 등 IT패널 수요가 성장을 견인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31%, OLED 시장은 스마트폰용 패널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52% 성장
- (가격) LCD TV 패널의 평균 판매가격은 2분기 연속 상승, OLED TV 패널의 평균 판매 가격은 초대형 패널 판매 확대 등으로 상승세로 전환
- (수출) 4분기 디스플레이 수출은 모바일·TV용 OLED 패널 수요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10% 증가한 60억 달러 기록

(휴대폰)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2020년 2분기에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으나 3분기 부터 회복되면서 4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4.3% 증가한 3.9억대를 기록

- (세계시장) 4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아이폰 신모델 출시, 5G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, 수요 회복 등으로 전분기 대비 9% 증가
- (시장점유율) 애플이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1위로 부상했으며, 샤오미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 강화 등으로 2020년 3분기부터 3위를 유지
- (수출) 4분기 휴대폰 수출은 스마트폰 수요 회복 등으로 부분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16.5% 증가한 37.5억 달러 기록



I. 반도체

(세계시장) 2020년 4분기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스마트폰 수요 회복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% 성장

- 4분기 세계 D램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13.2% 증가한 176억 달러, 낸드플래시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12.9% 증가한 142억 달러 기록
- 미국의 제재 강화에 따른 화웨이의 스마트폰 판매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은 화웨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공격적 전략으로 반도체 구매를 확대
 - 미국은 전세계 기업이 미국 기술(장비, SW)을 활용해 생산한 반도체를 화웨이에 판매시 미국 정부의 승인을 요구하는 강화된 규제안을 2020년 9월 15일부터 발효
 - 화웨이는 중국 1위, 세계 2위('19) 스마트폰 기업으로 중국 스마트폰 시장점유율('20.2분기)은 46% (카운터포인트)
- PC 수요는 재택근무, 원격교육 등으로 인해 견조했으나, PC의 반도체 수요 견인 효과는 중저가 PC인 크롬북 판매 증가 등으로 낮아짐
 - * 크롬북은 구글의 운영체제인 '크롬OS'를 기반으로 클라우드에 연결하여 사용하며, PC용 D램이 아닌 모바일용 D램을 탑재
- 서버용 반도체는 수요기업의 재고조정이 지속되었으나 일부 기업은 반도체 구매를 재개
 - 2020년 2분기에는 서버용 반도체 수요기업들이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IT공급망 붕괴를 우려하면서 반도체 재고축적 수요 발생, 3~4분기에는 재고조정 등으로 서버용 반도체 수요 둔화

세계 D램 시장규모



세계 낸드플래시 시장규모



자료: Trendforce.

(가격) 메모리반도체 가격은 서버 수요둔화 등으로 2020년 3분기부터 하락세로 전환, 4분기 D램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1.4%, 낸드플래시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3.2% 하락

- D램 가격은 2020년 1월부터 서버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상승했으며 6월에 전년동월 수준으로 회복, 7월부터는 서버용 반도체 재고조정 등으로 하락세로 전환

* D램의 수요처별 비중('20)은 모바일 40%, 서버 33%, PC 13% 순

* D램 평균 가격(달러): (20.1분기)2.89→(2분기)3.30→(3분기)3.13→(4분기)2.85

- 낸드플래시 가격은 2020년 7월부터 하락세로 전환됐으며 4분기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3.2%, 전분기 대비 3.7% 하락

* 낸드플래시의 수요처별 비중('20)은 모바일 37%, PC용 SSD¹⁾ 28%, 서버용 SSD 18% 순

* 낸드플래시 평균 가격(달러): (20.1분기)4.60→(2분기)4.68→(3분기)4.36→(4분기)4.2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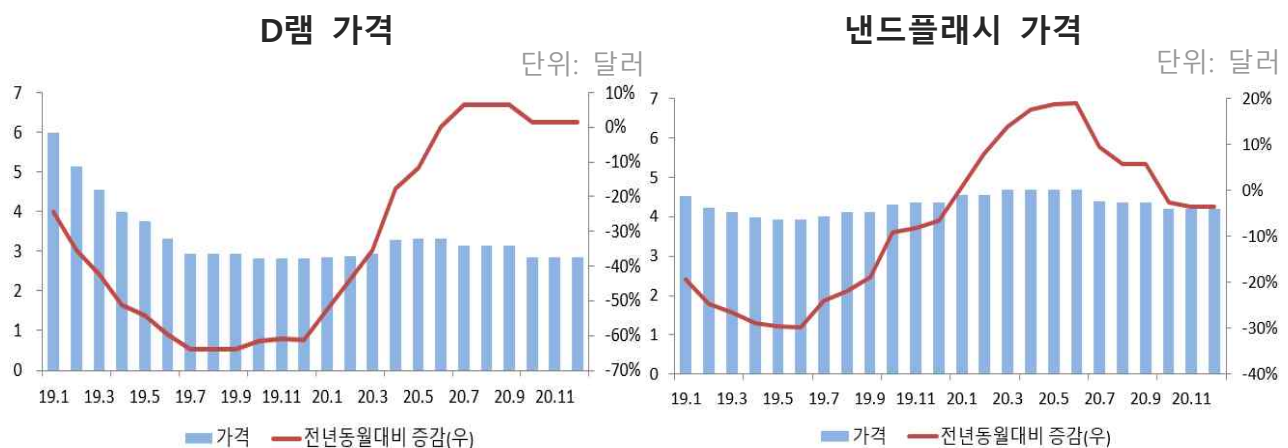
- 2021년 상반기 메모리반도체 가격은 서버 수요 회복 등으로 상승 전망

- D램 가격은 2020년 12월초에 발생한 마이크론의 대만 공장 정전 사고 등으로 인해 2021년 1월부터 상승했으며 서버용 D램 수요 회복 등으로 가격 상승세 유지 예상

· 2021년 2분기에 인텔의 신규 서버용 CPU인 Ice Lake가 출시되면 서버용 반도체 수요 증가로 D램 가격이 전년동기 수준으로 상승 예상

- 낸드플래시 가격도 2분기부터 서버 수요 증가 등으로 상승 예상

* 낸드플래시 가격 상승률(전분기 대비): ('21.1분기) 0.0% →(2분기) 2.7% (Trendforce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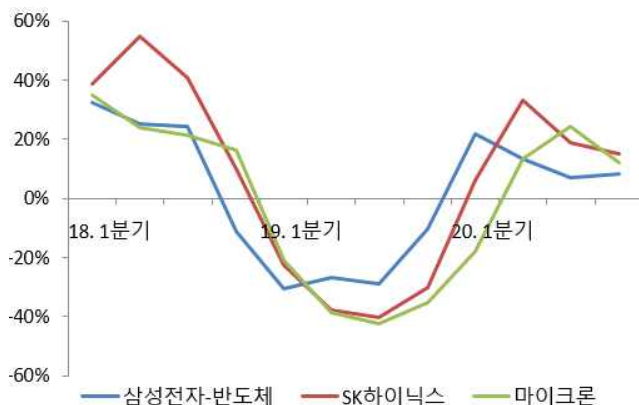
주: D램은 DDR4 8Gb 1Gx8 2133Mbps, 낸드플래시는 128Gb 16Gx8 MLC 고정거래 가격 기준.
자료: Trendforce.

1) Solid State Drive. 낸드플래시가 핵심 부품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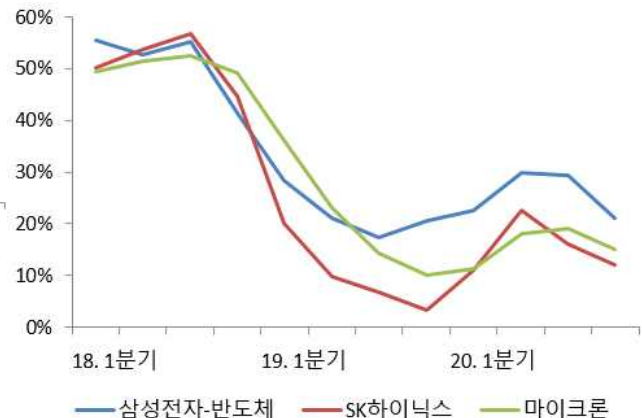
(기업) 주요 반도체기업은 메모리반도체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수요 회복, 원가절감 등으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

- 우리나라 메모리반도체 기업의 4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8% 이상 증가
 -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8.3% 증가했으며, 메모리반도체 매출(매출 비중 74%)은 전년동기 대비 2.5% 증가
 - 삼성전자는 세계 1위 메모리반도체 기업으로 D램 매출 규모는 낸드플래시 매출의 약 2배인 것으로 추정됨
 - 비메모리반도체 매출은 스마트폰용 이미지센서 등의 수요 증가, 파운드리(반도체 위탁생산) 수주 확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9.4% 증가
 - SK하이닉스는 서버용 D램 판매 호조, SSD 판매 확대 등으로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15% 증가
 - SK하이닉스는 D램은 세계 2위, 낸드플래시는 세계 4위 기업²⁾으로 4분기 매출 비중은 D램 73%, 낸드플래시 23%
- 주요 메모리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수율(양품 비율) 향상 등으로 12% 이상 기록
 -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2% 증가했으나 달러 약세 영향 등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수준인 21%를 기록
 -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판관비 감소, 수율 향상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298% 증가했으나 영업이익률은 평균 단가 하락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8.6%p 상승한 12% 기록
 - SK하이닉스는 2020년 6월말부터 128단 낸드플래시 양산을 본격화

주요 기업의 매출증가율



주요 기업의 영업이익률



주: 전년동기 대비 매출증가율, 마이크론의 4분기는 9~11월 기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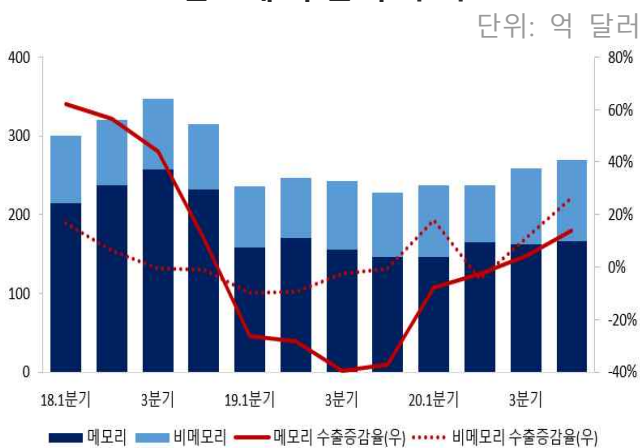
자료: 블룸버그 및 전자공시시스템.

2) 2020년 하반기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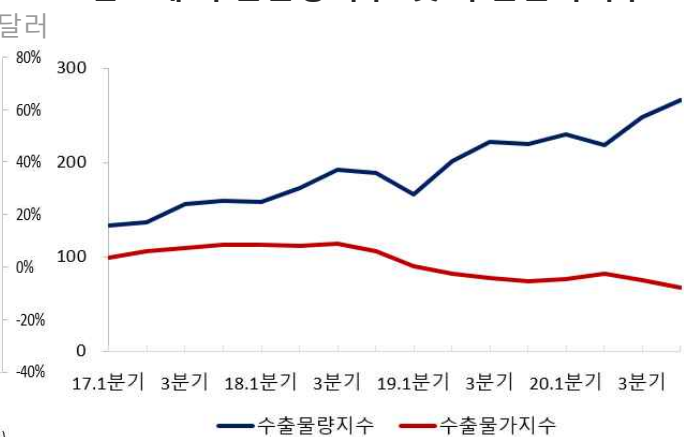
(수출) 4분기 반도체 수출은 모바일용 반도체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8.3% 증가한 270억 달러 기록

- 메모리반도체 수출(수출 비중 72%)은 전년동기 대비 13.7% 증가한 166억 달러, 비메모리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6.5% 증가한 104억 달러 기록
- 비메모리반도체 수출은 컨트롤러 등의 수요 호조, 파운드리 수주 확대 등으로 증가
- 주요 수출대상국인 중국(홍콩 포함), 베트남, 대만 수출이 모두 증가했으며,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 수출은 3분기부터 회복되면서 4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11.0% 증가
- 중국 스마트폰 기업의 반도체 구매 수요 등이 한국의 반도체 수출을 견인
 - * 대중국 반도체 수출증가율: ('20.1분기)△0.3%→(2분기)△5.9%→(3분기)2.8%→(4분기)11.0%
- 우리나라 기업의 IT 생산기지인 베트남 수출은 38.9%, 대만 수출은 85.5% 증가
- 4분기 반도체 수출물가지수(2015=100)는 2분기 연속 하락했으나 수출물량지수(2015=100)는 상승세를 유지
 - * 반도체 수출물가지수: ('19.4분기) 74→('20.1분기) 76→(2분기) 82→(3분기) 76 →(4분기) 68
 - * 반도체 수출물량지수: ('19.4분기)220→('20.1분기)230→(2분기)219→(3분기)249→(4분기)266

반도체 수출액 추이



반도체 수출물량지수 및 수출물가지수



주: 1) 비메모리반도체는 시스템반도체와 광·개별소자(LED 등 회로를 구성하는 각각의 소자)를 포함.
2) 수출물량지수와 수출물가지수는 2015=100, 원화 기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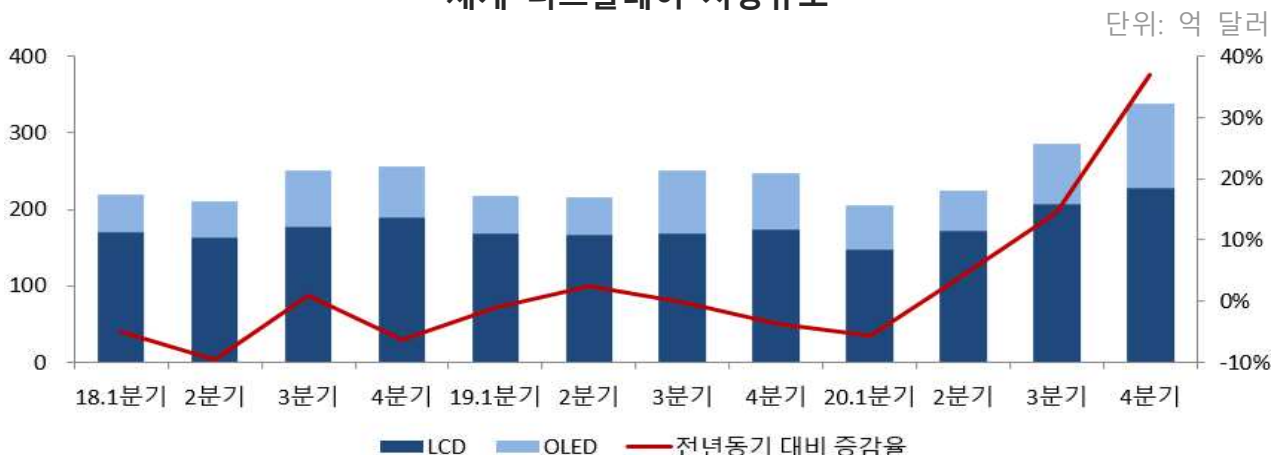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은행.

II. 디스플레이

(세계시장) 4분기 세계 디스플레이산업은 양호한 IT·TV 패널 수요, 스마트폰 수요 회복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7% 성장

- (LCD) LCD 시장은 노트북·PC 모니터·태블릿 등 IT패널 수요 증가, LCD 패널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1%, 전분기 대비 10% 증가
- IT 패널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35% 증가했으나 TV 패널 출하량은 미국·유럽의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른 연말 TV 프로모션의 효과 약화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% 감소
 - * TV는 오프라인 구매 비중이 높음
- LCD TV 패널 가격은 TV 생산라인의 IT 패널 생산라인으로 전환, 한국기업의 LCD 구조 조정 등에 따른 공급축소로 상승세 지속
 - 중국 Top 2 기업인 BOE와 China Star가 8.5세대 TV 생산라인을 IT 패널 생산라인으로 전환
- (OLED) OLED 시장은 아이폰 출시 효과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52% 성장
- 스마트폰용 OLED 시장(매출 비중 80%)은 아이폰 신모델 출시 및 판매 호조, 갤럭시S21의 전작 대비 빠른 출시('20.3월→'21.1월)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50% 성장
 - 아이폰은 매년 9월 출시되었으나 아이폰12는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이슈 등으로 인해 10월에 출시, 4개 모델 모두 OLED를 탑재(아이폰11은 3개 모델중 2개 모델이 OLED를 탑재)
- TV용 OLED 시장은 재택 체류시간 증가에 따른 고화질 프리미엄 TV 선호, 70인치 이상 초대형 TV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79% 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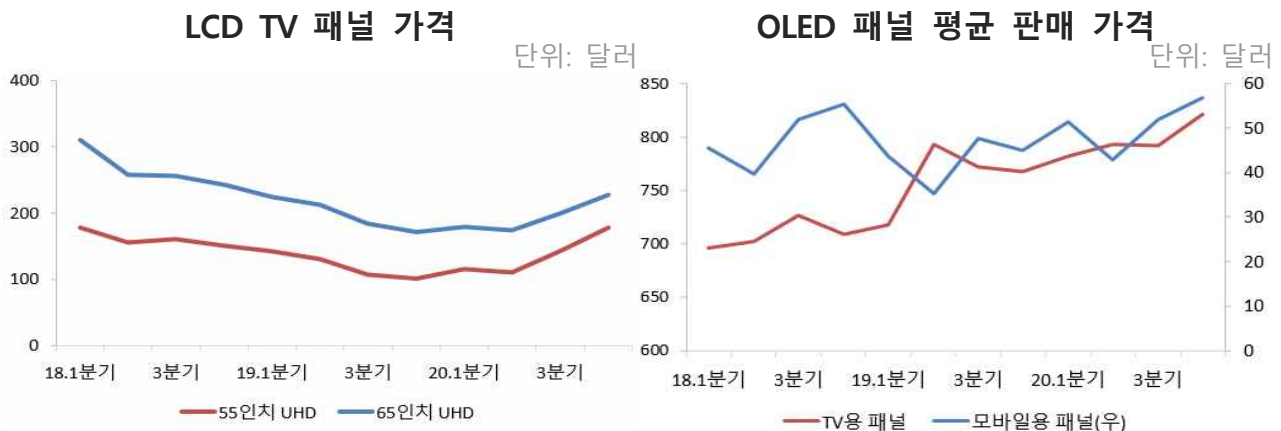
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



자료: 옴디아.

(가격) LCD TV 패널의 평균 판매가격은 2분기 연속 상승, OLED TV 패널의 평균 판매가격은 초대형 패널 판매 확대 등으로 상승세로 전환

- (LCD) LCD TV 패널 가격은 양호한 TV 수요, 부품 공급 부족 우려 등으로 상승세 지속
 - LCD TV 패널 가격은 3분기부터 TV 수요 증가, 한국기업의 LCD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상승
 -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이 중국의 공격적인 LCD 생산능력 확대 등에 따른 LCD 가격하락으로 2020년말 국내 LCD 사업 철수를 추진함에 따라 TV 제조사는 LCD 공급부족을 우려했음
 - 4분기 LCD TV 패널 가격은 주요 부품 공급 부족 우려 등으로 상승했으며 가격 상승은 2021년 1분기까지 이어질 전망
 - 유리기판 공급은 NEG의 Takatsuki 공장 정전사고('20.12.10)로 전면회복까지 4개월이 소요될 전망, 아사히 글라스 구미공장 탱크 폭발사고('21.1.29)의 영향은 제한적이나 공급부족 우려 증폭
 - * 유리기판은 코닝, 아사히 글라스, NEG의 과점구조이며 Takasuki 공장의 생산능력은 NEG 생산능력의 약 20%
 - 디스플레이 구동칩(Display Driver IC, DDI)은 대만 반도체 위탁생산(파운드리) 기업들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해소를 위해 생산 우선 순위 조정 등을 추진하면서 공급부족 우려 확산
 - * 대형 패널용 DDI는 8인치 웨이퍼, 모바일용 DDI는 12인치 웨이퍼에서 주로 생산하며, 차량용 반도체는 8인치 웨이퍼 팹 사용 비중이 높음
 - * 8인치 웨이퍼 팹은 5G, TV, PC 등의 수요증가로 4분기 팹 가동률이 100%에 육박
- 모바일용 OLED 패널의 평균 판매가격은 아이폰12 출시 등으로 인해 2분기 연속 상승, OLED TV 패널의 평균 판매 가격은 초대형 패널 수요 증가 등으로 상승
 - 아이폰12의 OLED 패널 가격은 70~100달러대(미니 70달러대, 프로맥스 100달러대)로 모바일용 OLED 패널 평균 판매 가격보다 높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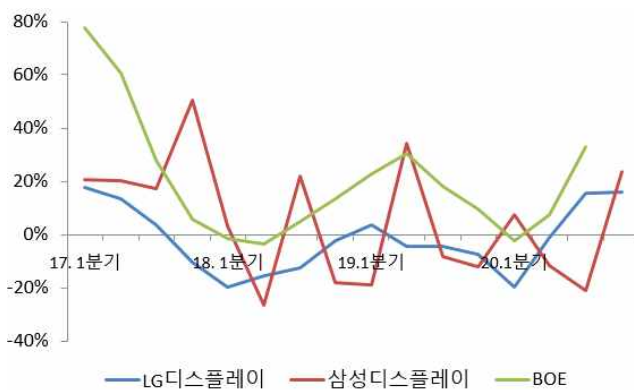
자료: 옴디아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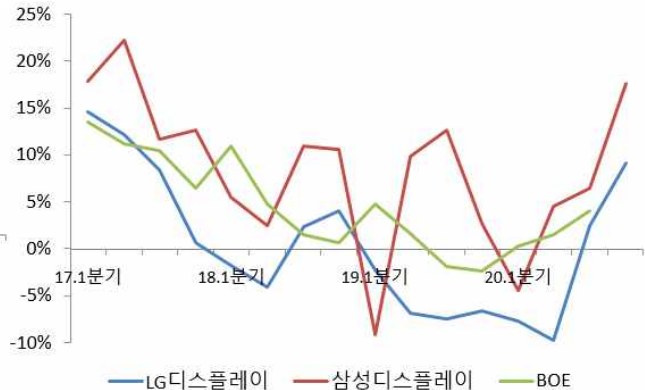
(기업) 4분기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의 매출은 LCD·OLED 패널 가격 상승,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출하량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6% 이상 증가

- (LG디스플레이) 4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6%, 전분기 대비 11% 증가한 7.5조원을 기록, 영업이익은 3분기부터 흑자 전환되면서 실적 부진에서 탈피
 - 패널 출하면적은 전년동기 대비 5% 감소했으나 면적당 판가는 TV·모바일용 OLED 패널 출하 증가, LCD 패널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0% 증가
 - * 4분기 기준 제품별 매출 비중: IT 패널 37%, TV 29%, 모바일·기타 등 34%
 - 영업이익은 모바일용 OLED 패널 수율 개선 및 공급량 확대, 중국 광저우 OLED팩 본격 양산(7월)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17% 상승, 2분기 연속 흑자 달성
 - * LG디스플레이는 아이폰11부터 OLED 패널 공급사로 선정되었으며, 2020년에 출시된 아이폰 12의 4개 모델중 1개 모델에 OLED 패널을 공급
- (삼성디스플레이) 4분기 매출은 스마트폰용 OLED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4%, 전분기 대비 36% 증가한 10조원을 기록
 -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이폰12의 OLED 패널 최대 공급사이며, OLED 매출(매출비중 80% 대 중반)은 아이폰 출시 효과 등으로 인해 큰 폭으로 상승
 - LCD는 평균 판매가격 상승 등으로 전분기 대비 실적 개선
 - 영업이익은 중소형 OLED 팩 가동률 상승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8배 증가한 1.75조원 기록

주요 기업의 매출증가율



주요 기업의 영업이익률



주: 1) 삼성디스플레이의 2020년 2분기 영업이익에는 애플이 발주물량이 적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(1조원 추정)이 반영됨.

2) BOE의 영업이익률에는 중국 정부 보조금 포함.

자료: 전자공시시스템 및 각사 홈페이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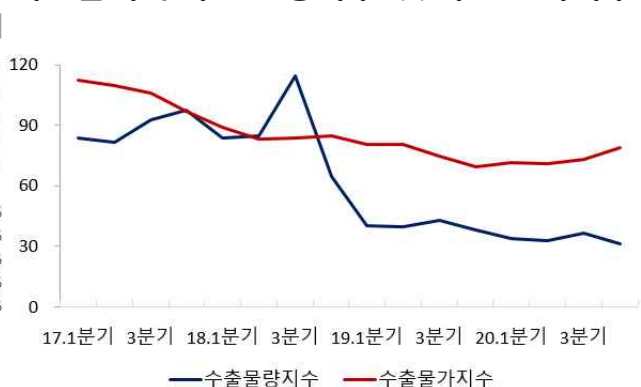
(수출) 4분기 디스플레이 수출은 모바일·TV용 OLED 패널 수요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% 증가한 60억 달러 기록

- OLED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8% 증가한 40.7억 달러, LCD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3% 감소한 19.4억 달러 기록
- OLED 수출은 2019년 3분기부터 LCD 수출보다 커졌으며, 4분기에는 아이폰12의 출시 효과 및 판매 호조 등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
- LCD 수출은 패널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의 LCD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
- 최대 수출 대상국인 베트남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68.6% 증가했으나 중국(홍콩 포함) 수출은 중국기업의 성장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5.4% 감소
 - * 베트남은 우리나라 IT기업의 생산기지로 디스플레이 기업의 모듈 공장 소재국
 - * 국별 디스플레이 수출비중: 베트남 ('20.2분기)42%→(4분기)63%, 중국 (2분기)49%→(4분기)32%
- 베트남은 OLED 최대 수출대상국이며 OLED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4.8% 감소
 - * OLED 수출비중: 베트남 (2분기)62%→(4분기)83%, 중국 (2분기)35%→(3분기)16%
- 대중국 LCD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4%, OLED 수출은 30% 감소
- 4분기 디스플레이 수출물가지수(2015=100)는 79으로 전년동기 대비 14% 상승했으나 수출물량지수(2015=100)는 전년동기 대비 19% 하락
 - * 디스플레이 수출물가지수: ('19.4분기)69→('20.1분기)72→(2분기)71→(3분기)73→(4분기)79
 - * 디스플레이 수출물량지수: ('19.4분기)38→('20.1분기)34→(2분기)33→(3분기)37→(4분기)31

디스플레이 수출액



디스플레이 수출물량지수 및 수출물가지수



주: 수출물량지수와 수출물가지수는 2015=100, 원화 기준.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은행.



Ⅲ. 휴대폰

(세계시장)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2020년 2분기에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으나 3분기부터 회복되면서 4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4.3% 증가한 3.9억대 기록

- 4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아이폰 신모델 출시, 5G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, 수요 회복 등으로 전분기 대비 9% 증가
- 스마트폰 출하량은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판매 채널 강화, 소비자의 외부활동(휴가 등) 감소에 따른 가처분 소득 증가 등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임
 - 스마트폰은 오프라인 판매 비중이 높았으나 주요 기업들이 상반기의 경험을 토대로 온라인 판매 채널을 강화하면서 인도의 4분기 온라인 판매비중은 51%로 상승
- 중국, 인도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회복되었으나 미국, 유럽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코로나 19 확진자수 증가, 2차 봉쇄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6%, 14% 감소
 - *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(전년동기대비): ('20.2분기)△10.3%→(3분기)△14.3%→(4분기)0.3%(IDC)
 - * 인도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(전년동기대비): ('20.2분기)△50.6%→(3분기)16.5%→(4분기)21%(IDC)
- 5G 스마트폰 출하량 비중은 최초의 5G 아이폰 출시 등으로 2020년 3분기 17%에서 4분기 34%로 2배 증가 (카운터포인트)

세계 스마트폰 출하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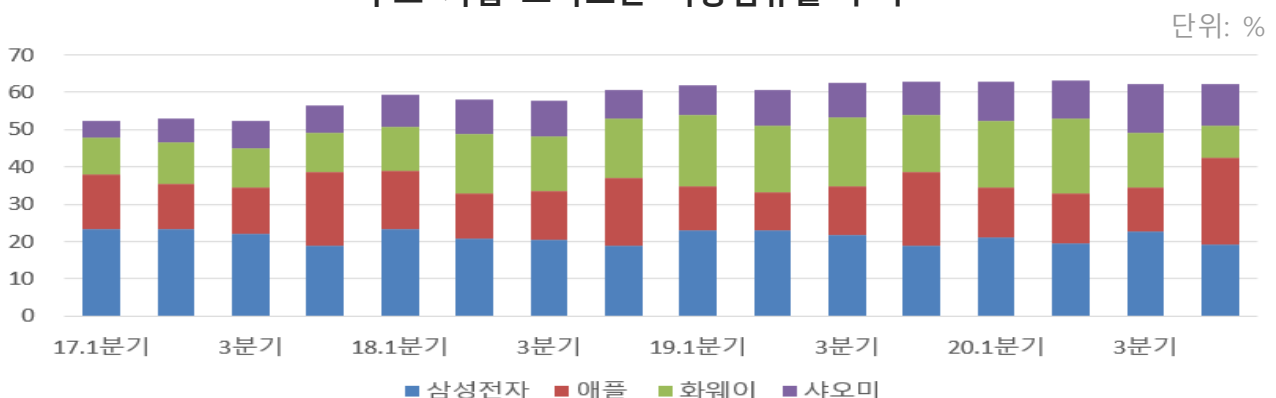


자료: IDC.

(시장점유율) 애플이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1위로 부상했으며, 샤오미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 강화 등으로 인해 2020년 3분기부터 3위를 유지

- 애플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아이폰12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전작대비 1달 연기된 10월에 출시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22% 증가, 세계 시장점유율은 23.4%를 기록
 - 애플은 아이폰 신모델을 매년 9월에 출시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부품 공급망이 영향을 받아 10월에 출시
 - 4분기 스마트폰 순위는 아이폰 신모델 출시효과로 애플이 1위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
-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갤럭시 A시리즈의 판매호조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6.2% 증가, 세계 시장점유율은 19.1%를 기록
- 화웨이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해외 수요 급감, 부품 공급 부족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1% 감소, 세계 시장점유율은 2020년 2분기 20.0%에서 4분기 8.4%로 하락
 -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로 안드로이드 OS 사용이 어려우며, 미국의 추가 제재로 2020년 9월 15일부터 미국기술로 생산한 반도체 구매가 어려워지면서 부품 공급부족을 겪고 있음
 - 화웨이의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34.5% 감소했으나 중국 시장점유율은 25%로 1위를 유지
 - 화웨이는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 'Honor'를 선전(深圳) 즈신신(智信新) 정보기술에 매각(11월)하여 2021년 화웨이의 시장점유율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
 - * Honor는 화웨이 스마트폰 출하량('19)의 약 30%를 담당하며 선전 즈신신은 대주주가 선전시
- 샤오미는 화웨이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하면서 출하량이 전년대비 32% 증가, 세계 시장점유율은 11.2%로 삼성전자와 점유율 차이가 약 8%p로 좁혀짐
 - 샤오미의 중국 출하량은 미국의 화웨이 제재 영향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8% 증가

주요 기업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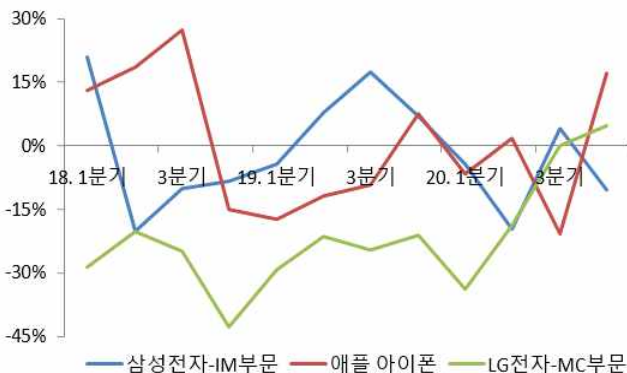


자료: IDC.

(기업) 주요 한국 스마트폰 기업의 4분기 실적은 스마트폰 경쟁심화, 아이폰 신모델 출시 효과 등으로 성장성과 수익성 둔화

- 삼성전자 IM(IT & Mobile Communication)부문 매출은 스마트폰 경쟁심화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% 하락
 - 삼성전자의 매출은 중가 갤럭시 A 시리즈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아이폰12,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중국기업과의 경쟁 심화로 매출 감소
 - 영업이익은 부품 공용화 등 원가구조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비용이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% 감소
 - 애플의 아이폰 매출은 신모델 출시 효과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7.2% 증가
 - 애플의 4분기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은 미중갈등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 대비 34.7% 증가, 애플은 중국 스마트폰 시장 2위로 부상
 - LG전자 MC(Mobile Communications)의 매출은 양호한 중저가 제품 수요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5% 성장
 - 영업이익은 평택 생산라인의 베트남 이전, ODM 확대 등으로 고정비는 감소했으나 프리미엄 제품 판매 부진으로 전분기 대비 영업손실 확대
- * LG전자 MC부문 영업손실(조원): ('20.1분기)0.24→(2분기)0.21→(3분기)0.15→(4분기)0.25
- LG전자는 MC사업부가 23분기 연속 적자(누적 적자 5조원)를 기록하자 스마트폰 사업의 구조조정을 검토중이며 분할매각 등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음
 - LG전자의 세계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1% 내외 수준이나, 4분기 미국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9%로 미국 3위를 유지(카운터포인트)

주요 기업의 매출증가율



주요 기업의 영업이익률



주: 애플의 영업이익률은 전사 기준(부문별 영업이익 미발표).
자료: 블룸버그 및 전자공시시스템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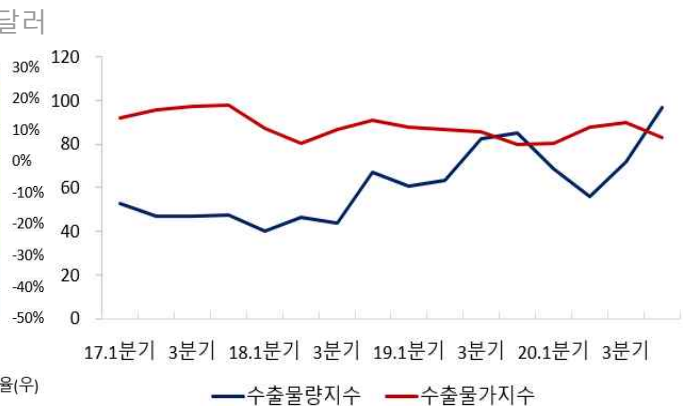
(수출) 4분기 휴대폰 수출은 스마트폰 수요 회복 등으로 부분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16.5% 증가한 37.5억 달러 기록

- 부분품 수출(비중 70%)은 2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4분기에는 아이폰12 출시 효과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6.3% 증가
 - * 부분품 수출증가율: ('20.1분기)4.9%→(2분기)△17.8%→(3분기)△20.3%→(4분기)26.3%
- 부분품 수출은 아이폰12의 판매 호조 등으로 큰 폭 상승
 - LG이노텍은 아이폰 카메라 모듈의 최대 공급사이며, 삼성전기는 아이폰12에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도록 조절하는 적층세라믹콘덴서(MLCC, Multi Layer Ceramic Capacitor)를 공급
- 완제품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.6% 감소했으나 전분기 대비 22.0% 증가
- 중국(홍콩포함), 베트남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, 미국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감소
 - 아이폰 생산기지인 중국은 4분기 부분품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75% 증가, 베트남은 한국 스마트폰 기업의 생산기지로 부분품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0% 증가
 - 미국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 회복 등으로 수출하락폭(전년동기 대비)이 2분기 44%에서 3분기 24%, 4분기 17%로 개선
- 4분기 휴대폰 수출물가지수(2015=100)는 스마트폰 고사양화 등으로 전년동기 소폭 상승한 83을 기록, 수출물량지수(2015=100)는 2분기를 저점으로 반등 지속
 - * 휴대폰 수출물가지수: ('19.4분기)80→('20.1분기)80→(2분기)88→(3분기)90→(4분기)83
 - * 휴대폰 수출물량지수: ('19.4분기)85→('20.1분기)69→(2분기)56→(3분기)72→(4분기)97

휴대폰 수출액



휴대폰 수출물량지수 및 수출물가지수



주: 수출물량지수와 수출물가지수는 2015=100, 원화 기준.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은행.